

트럼프의 도미노

조덕원 코리아국제포럼코오디네이터 세계반제플랫폼조직자

트럼프로부터 시작된 도미노현상에 세상이 시끄럽다. 신의 <첫 충격>은 관념이지만 트럼프의 <첫충격>은 실재다. 마치 도미노 처럼 연쇄적으로 세계에 충격을 주고있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2025>는 한마디로 서반구를 선택해 집중하겠다는 <서반구요새화전략>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반구점진적포기전략>이라고도 할수 있다.

그결과 제국주의진영이 약화되고 반제진영이 강화되며 3차세계대전본격화가 앞당겨지고있다. 세계적판도에서 전략적변화의 거센 바람이 불고있다.

1. 제국주의진영의 분열을 촉진하는 반제진영의 전술적공조전술

트럼프는 미쇼비니스트세력을 대표한다. 세계속에서 미국의 위상때문에 트럼프세력은 전세계쇼비니스트정치세력을 대표한다. 제국주의진영내 모순을 설명하는데서 이른바<글로벌리스트>와 이른바<쇼비니스트>의 대립구도가 현실세분석에 특히 유용하다.

전통적인 정치스펙트럼에서 글로벌리스트는 사민주의우파를,

쇼비니스트는 보수주의세력을 주축으로 삼고있다. 이는 글로벌리스트가 쇼비니스트를 파시스트라고 비판하는 근거중 하나다. 하지만 글로벌리스트도 넓은 의미의 쇼비니스트다. 글로벌리스트의 조종아래 대리전을 수행하는 우크라이나의 신나치와 이스라엘의 시오니스트는 전형적인 정치적쇼비니스트, 파시스트다. 쇼비니스트를 앞세워 파쇼전쟁을 벌이는데 쇼비니스트가 아닐수 없다. 글로벌리스트는 이름과 달리 현시대 대표적인 쇼비니스트, 파시스트다. 이들은 교활하게도 사민주의좌파를 이리저리 움직여 <시오니스트좌파>로 만들었다. 사민주의우파, 글로벌리스트는 사민주의좌파의 기회주의적속성을 이용하고있다.

현재 쇼비니스트, 보수주의세력의 주류는 우크라이나전에 개입하는것을 반대하고 상대적으로 친러경향을 띠고있다. 미국에서 보수주의세력 공화당은 파시스트전통이 없을뿐아니라 심지어 군산복합체를 대변하는 네오콘마저 제거했다. 미공화당이 내세우는 건국의 이념에 독립정신이 있다는 사실은 무시할수 없다. 대표적인 파쇼정책으로 외국가(外國家)와의 전쟁과 외국인(外國民)에 대한 박해를 들수 있다. 전자는 그최고선이고 후자는 그최저선이다. 2차세계대전때와는 달리 현3차세계대전정세에서



는 전자가 사민주의우파주축의 글로벌리스트고 후자가 보수주의세력주축의 쇼비니스트다. 글로벌리스트는 우크라이나에서 신나치, 서아시아에서 이스라엘시온리스트를 앞세워 외국가와 야수적인 전쟁을 벌이고있는 반면 쇼비니스트는 아직 자국내에서 외국민에 대한 박해가 <아우슈비츠>에 가뒀놓고 잔인하게 살해하는 수준에 이르지못하고있다. 한마디로 오늘날 대표적인 파시스트는 쇼비니스트가 아니라 글로벌리스트다. 때로 외국민에 대한 박해가 뉴스의 초점이 되더라도, 세계대전을 감행하고 유도하는 세력이 글로벌리스트라는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편 쇼비니스트는 전쟁을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원하지않는것이고 피하는것이다. 그이유는 전쟁으로 자국군인들이 죽고 재정피해가 막대해서며 그리고 그전쟁에서 이기는것이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만일 전쟁에서 이길수 있고 피해정도도 적다면, 역사가 입증하듯이, 이들은 언제나 쉽게 그전쟁에 동의할 세력이다. 쇼비니스트도 제국주의진영의 일원이다.

그래서 공동주의세력을 비롯한 반제세력은 이쇼비니스트를 반전평화운동, 반제자주화운동의 동력으로 삼을수 없다. 즉, 전략

적통일전선은 물론이고 진술적공동전선도 형성할수 없다. 공동주의세력이 진술적공동전선의 대상으로 삼는 세력은 2차세계대전때와 달리 사민주의세력중 좌파세력뿐이다. 현시기 사민주의우파세력이 글로벌리스트의 주축이 된만큼 진술적공동전선의 대상이 될수 없다.

공동주의세력을 비롯한 반제세력은 쇼비니스트, 보수주의세력과 진술적공동전선을 맺을수 없지만 진술적공조는 취할수 있다. 진술적공조는 2차세계대전시기 사회주의소련대표가 제국주의미국·영국의 대표와 만나 합의하며 형성한 진술적공동전선과 다르다. 전략적통일전선과 진술적공동전선의 차이만큼이나 진술적공동전선과 진술적공조는 다르다.

진술적으로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의미의 진술적공조는 공동의 적인 글로벌리스트를 고립시키고 보다 강하게 타격하기 위해서, 반제세력과 보수주의쇼비니스트가 각각의 공격의 예봉을 글로벌리스트에 겨냥하며 두세력간의 상호공격은 자제하는것을 말한다. 공동주의세력, 반제세력은 이전술적조치로 제국주의진영내의 글로벌리스트와 쇼비니스트간의 모순을 최대로 심화시킬수 있다. 쉽게 말해, 아측은 2배로 단결하고 타측은 양분



되면 산술적으로 그효과는 4배가 된다.

전술적공조와 비슷한 예를 굳이 2차세계대전의 경험에서 찾는다면, 스탈린이 독일, 일본과 각각 소독불가침조약, 소일중립조약을 맺은것을 들수 있다. 조약이라는 형식은 결국 독일, 일본의 배신적행위로 파기됐듯이, 중요하지않다. 이전술적조치는 독일이 서유럽과 다른제국주의국가영국으로, 일본이 동남아와 다른제국주의국가미국으로 주공방향을 돌리게 하는데 주효했다. 그결과 제국주의진영은 분열, 약화됐고 사회주의소련은 좌우양측의 협공을 피해 역량을 강화할 시간을 벌면서 전쟁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결정적계기로 만들었다. 참고로, 오늘 전술적공조를 위해 과거 전술적조약과 같은 협정을 맺을 필요는 없다. 상호합의를 전제조건으로 삼는것은 전술적공조가 아니라 전술적공동전선이다.

전술적공조는 현재 러시아와 중국, 조선이 미국을 상대로 실제 취하고있는 조치다. 우크라이나전이후 이반제주력국가들은 일관되게 제국주의진영내의 글로벌리스트를 주타격대상으로 삼고 쇼비니스트와 전술적공조를 취하고있다. 2차세계대전때 소

련의 전술적공동전선이나 전술적조약에 대해 전세계 공동주의세력, 반파쇼세력이 공감하며 유념했듯이, 오늘도 반제3국이 취하고있는 전술적공조조치에 대해 전세계 공동주의세력, 반제세력도 유의해야한다.

2. 제국주의진영내 모순의 심화

트럼프미정부의 출현이후 글로벌리스트와 쇼비니스트간의 갈등은 날로 심화되고있다. 그갈등은 경제, 정치 분야만이 아니라 내전과 영토분쟁의 군사적충돌로까지 번질수 있을만큼 심각하다. 글로벌리스트와 쇼비니스트간의 모순은 다방면에 걸쳐 날로 심화되고있다.

먼저 트럼프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전대미문의 <관세전쟁>부터 시작했다. 주로 <동맹국>들을 그대상으로 삼았는데, 그집권세력들은 대부분 글로벌리스트, 사민주의우파들이다. 트럼프정부는 2025.6 나토헤이그정상회의에서 유럽연합각국에게 GDP대비 5%까지 국방비를 증액하라고 강요했다. 이는 미국이 더이상



영화<시빌워:분열의시대>, 백악관에서 미대통령 사살장면

나토에서 활동할 뜻이 없다는 폭탄선언과 같다. <점진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본질상 우크라이나전에서, 나토활동에서 손을 떼겠다는 트럼프미정부의 의지는 유럽연합, 나토측에 명확히 전달됐다.

반면 트럼프는 8월 푸틴과 알래스카에서 회담하고 10월 시진핑과 <한국>에서 회담하면서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로 일관했다. 제국주의진영내의 동맹국들과는 한껏 다루고 반제진영의 적수국들과는 오히려 친하게 지내려하는 이 2중적이고 모순적인 모습은 제국주의진영내의 트럼프세력, 미쇼비니스트의 정치적입장과 실용적판단을 잘 보여준다. 트럼프정부의 이모습이 1기때에 이어 2기때에도 내내 일관됐다. 트럼프세력, 미쇼비니스트에게 그존재를 위협하는 제1의 적, 주적은 글로벌리스트다.

미국에서 쇼비니스트는 글로벌리스트를 <딤스테이트>라고 부르며 최우선청산대상으로 삼고있다. 미쇼비니스트와 글로벌리스트간의 적대적모순관계는 트럼프의 집권1기출범식연설때부터 집권2기의 현재까지 단1번도 달라진적이 없으며 계속 악화되고있다.

2024.7 나토워싱턴정상회의에서 <나토의태평양화>의 정치적준비가 완료됐다고 선언한후, 그해 6~8월 <프리덤에지>, <림팩>, <올지프리덤실드>등 합동군사연습으로 그군사적준비가 완료돼가던중인 7.13, 암살범의 총알이 트럼프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다. 당시 글로벌리스트는 공공연히 트럼프를 제거하라고 선동하고있었다. 트럼프에 대한 암살시도는 실패에 그쳤지만, 2025.9 <리틀트럼프> 커크에 대한 암살시도는 실패하지않았다. 글로벌리스트가 만든 영화 <시빌워:분열의시대>는 내전을 일으켜 3연임을 시도하는 대통령, 명백히 트럼프를 염두에 둔 인물을 백악관에서 사살해버린다. 푸틴의 경험에서도 알수 있듯이, 3연임을 합헌적으로 관철할수 있는 방법론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작금의 트럼프는 여차하면 계엄령까지 선포할 기세다. 미국내에서 쇼비니스트와 글로벌리스트간의 모순이 내전으로 치닫고있다는것은 일반언론에서도 보도할정도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니애폴리스에서 2026.1.7과 1.24 일어난 <굿사망>사건과 <프레티사망>사건은 2020.5.25 <플로이드사망>사건을 능가하



는 대중적공분을 일으키고있다. 오바마가 나서서 반정부시위를 선동하는것도 놀랍지않다. 오바마는 세상이 다 아는 글로벌리스트의 우두머리중 하나다. 트럼프는 언제나 바이든의 배후로 오바마를 지목해왔다.

<엡스틴리스트>는 쇼비니스트가 글로벌리스트를 공격하기 위해 제기됐다. <똥뿔은개가겨뿔은개를나무란다>는식으로 진행되는 최근의 이슈도 결국 이두세력간의 치명적갈등을 격화시킬 뿐이다.

미국의 서반구중심전략으로 인해 유럽연합과의 모순이 더욱 심화되고있다. 서반구는 아메리카 더하기 그린란드다. 엄격히 말하면, 서반구에는 아이슬란드도 들어가고 영국 그리니치천문대의 직선아래의 서쪽이 다 포함된다. 미국의 영토적야욕은 절대 그린란드에서 멈추지않을것이다.

현재 트럼프미정부는 우선 아메리카에서 중·남부에서는 <런치핀>에 해당하는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납치하고 그원유를 강탈하는데, 북부에서는 그린란드를 미국이 소유하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주로 만드는데에 집중하고있다. 트럼프정부가 1.3 <절대적결의>작전을 수행한후 바로 그린란드소유야욕을 드러내고 이어 캐나다정부가 중국과 협정을 맺으면 관세100%를 때리겠다고 위협하는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중 특히 그린란드건이 유럽연합을 심히 자극하고있다. 트럼프가 시사한대로, 군사적옵션을 취해 유럽연합과 무력충돌이

벌어지면 나토의 집단방위적속성상, 나토의 해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나토의 해체는 제국주의진영의 돌이킬 수 없는 분열, 치명적붕괴를 의미한다. 이렇게까지 제국주의진영이 분열, 약화되서는 절대로 반제진영과 세계대전을 치를수 없다. 이미 시작된 세계대전에서의 제국주의진영의 패배는 불을 보듯 뻔한일이 된다.

그만큼 위험하기에 다보스포럼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일시적 미봉책에 합의했다. 이란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에게 유럽연합과의 갈등을 유보할 필요가 있어서다. 군사적옵션을 배제하겠다는 레토릭의 대가만으로도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군사·경제적지배력은 보다 강해졌다. 그린란드장악은 미제국주의의 오랜 숙원으로서 11월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트럼프 세력, 공화당이 내세울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과다.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은 서로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돌아올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유럽연합은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의 분쟁이 어떤 후과로 이어질지를 잘 알고있다. 유럽연합이 미국 없는 나토를 진지하게 검토중인 이유중 하나다.

3. 반제진영의 단결, 강화와 앞당겨진 3차세계대전의 본격화

그린란드건이 미국과 유럽연합간, 제국주의내부의 모순을 증폭시켰다면 베네수엘라건은 미제국주의와 반제진영간의 모순을



이란인근해 미해군구축함

증폭시켰다. 전자는 제국주의진영의 분열에 기여하고있고 후자는 반제진영의 단결에 기여하고있다.

트럼프정부는 베네수엘라합법대통령 마두로를 납치하면서 스스로 <법집행>이라고 우기지만 그자체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는것을 트럼프세력만 부인할뿐 그의 모든 세상사람들이 인정한다. 이에 트럼프정부는 아예 유엔기구들에서 탈퇴하면서 <또다른유엔>창설까지 주장하고있다. 이는 베네수엘라권이 제국주의진영내의 모순을 증폭시키는 계기도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다른제국주의국가수반들조차 트럼프의 마두로납치를 비난하고있다.

트럼프세력은 베네수엘라를 서반구요새화전략에 따라 확실히 장악해야할 나라로 보고, 반제자주와 민중민주의 이념과 원칙이 확고한 마두로대통령을 납치하는 한편 11월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관건적과제인 유가하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 최대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원유를 통제하는데 집중하고있다.

마두로정부를 계승한 로드리게스정부에게는 주권을 수호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협상을 전개해야하는 어려운 과제가 놓여있다. 과거 중국과 베트남이 소련·동구가 붕괴된후의 경험과 비슷한일이 오늘 베네수엘라에서 재현되고있다. 원칙성과 융통성의 균형은 언제나 중요하고 어려운법이다. 지금이야말로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혁명을 지지하는 국제연대가 그어느때보다도 중

요한때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원유만이 아니라 이란원유까지 통제한다는것은 중국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이다. 중국의 가장 중요한 원유수입국이 이란이다. 미국이 이두나라의 원유를 장악해 국제유가를 좌지우지할수 있다면 이는 러시아에게도 큰 타격이 된다. 그런만큼 중국이 미국·이스라엘등이 일으키고있는 이란에 대한 <색깔혁명>시도에 특별한 경각성을 갖고 이란을 그어느때보다도 강력히 지원하는것은 당연하다. 카리브해에 미해방모단이 출현한 이후 <절대적결의>작전이 수행된만큼 인도양의 이란근해로 미해방모단이 이동한것은 위험천만한 군사적모험이 아닐수 없다.

이란은 베네수엘라와도 다르고 시리아와도 다른 군사강국이다. 미사일강국 이란은 언제든 이라크·쿠웨이트·카타르·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동부등의 미군기지들을 다양한 미사일과 드론으로 단숨에 초토화시킬수 있다. 이란은 미국이 2020.1.3 솔레이마니를 폭살했을때 보복으로 이라크미군기지를, 2025.6 이란핵시설을 폭격했을때 역시 보복으로 카타르미군기지를 미사일로 타격했다. 이스라엘은 고·중·저고도방어망을 유지할 미사일들이 부족해졌고 미국은 저락된 생산능력으로 이미사일들을 보충할수 없다.

다시말해, 이란의 탄도미사일공격은 서아시아(중동)의 미군기지들과 이스라엘을 단숨에 가루로 만들어버릴수 있다. 그과정

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동부의 최대유전시설 아람코도 불탈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등이 미국의 이란공격에 협조하지않겠다고 선언한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핵항모단이 이란근해에 들어왔고 미해군무력이 속속 집결하고있다. 지난해말 미해군무력이 카리브해에 집결한후 베네수엘라가 어떤 공격을 당했는지 온세계가 지켜보았다. 이란은 지금 최대의 경각성으로 <지역전쟁>까지 각오하고있다.

미국이 결국 이란전을 감행한다면, 서아시아만이 아니라 그동맹국들까지 포함되는 전쟁, 세계대전으로 확산된다. 2022.2 우크라이나전으로 시작된 3차세계대전이 전면적이란전으로 본격화된다. 이는 전쟁의 엄청난 인명적, 재정적 후과를 잘 알고있는 트럼프정부, 미쇼비니스트들이 원치않는 시나리오다.

미국이 다극주의시대의 역량변화를 감안해 서반구를 선택해 집중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를 <트럼프코롤러리>, <신면로주의(돈로주의)>라고 부르며 NSS2025에 이어 <미국국방전략(NDS2026)>까지 발표한만큼, 이정책변화가 중국-조선에게 <신애치스라인>으로 임히는것은 합리적이다. 다시말해, 미국이 핵미사일최강국들인 중국, 조선과의 전면전을 두려워하며 사실상 대만, <한국>을 포기하고 <제1도련선>에서 <제2도련선>으로 후퇴했다고 이해된다는것이다. 그런만큼 자연스럽게 중국과 조선의 오랜 숙원인 영토완성이 임박했다는 분석들이 많아지고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압박과 이란에 대한 <씩갈혁명>시도에 대한 대응의 하나로 2025.12.29~31 3일간 대만포위훈련을 긴급히 최종리허설처럼 진행했다.

조선은 베네수엘라건이 터진 직후 1.4 <화성11마> 신형극초음속미사일발사시험을 단행했다. 이미사일은 장차 핵잠수함에 장착될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도 여러사건을 종합해 1.8 <오레쉬니크> 극초음속미사일로 우크라이나서부 유럽최대가스저장시설을 타격하는 조치를 취했다.

조선과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연합, 나토가 가장 두려워하는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실제로 3차세계대전이 본격화되면 조선과 러시아는 굳이 전술핵을 쓰지않고도 이런 가공할 극초음속미사일들을 이용하면 상대를 능히 제압할수 있다. 중국도 같다. 당연히 전황이 여의치않으면 전술핵을 탑재해 쓸수도 있다. NSS2025와 NDS2026에 나온 선택과 집중의 내용은 모두 이에 대한 트럼프정부의 진지한 검토의 결과로 해석해야한다.

미제국주의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대통령납치사건과 이란에 대한 <씩갈혁명>시도는 라틴아메리카의 반제국가와 반제세력만이 아니라 전세계적범위에서 반제세력, 반제진영의 각성과 단결을 비상히 촉진시키고있다.

1936 파시스트가 스페인 다음에 프랑스, 서유럽, 동유럽으로 침략의 화살표를 그려나갔듯이, 2026 제국주의는 베네수엘라 다음에 쿠바, 중미, 남미로 그타격방향을 그려나가고있다. 미국

은 중미에서 베네수엘라 다음의 타깃으로 쿠바를 지목하며 베네수엘라와 러시아로부터의 석유수입선을 철저히 봉쇄하며 쿠바경제를 질식시키고있다. 스페인에서 국제여단이 <노빠사란!> 구호를 외쳤듯이, 오늘 베네수엘라에서 그렇게 해야한다.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혁명이 무너지면 중-남미에 반혁명의 도미노현상, <블루타이드>의 격랑이 밀려올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조선이 <전략적인내>정책을 접고 대만전과 <한국>전을 결행한다면 즉시 러시아와 이란의 전략적인내정책도 바뀌지않을수 없다. 3차세계대전의 본격화는 동아시아전쟁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세계적범위에서 국지전-지역전쟁의 형세를 완전히 바꿔버릴것이다. 서아시아에서 <저항의축>이 확대되고 이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결정적타격을 입게 될것이며, 라틴아메리카에서 혁명의 도미노현상, <핑크타이드>를 넘어서는 <레드타이드>가 밀려올것이다.

미국은 이미 내린 결론대로 동반구에서는 적당히 개입하다가 점진적으로 퇴각하는 방향으로 대응할것이고 서반구에서만큼은 자신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겠다고며 어떻게든 발악할것이다. 미국은 스스로 <질서있는후퇴>라고 말하겠지만 현실은 세계곳곳에 배치된 미군들이 반제세력의 포로로 전략하며 미국에게 대재앙이 될것이다. 미국은 NSS2025대로 서반구라도 건지겠다고 하겠지만, 이미 기울어진 대세를 바로잡지못할것이다. 사필귀정, 반제진영의 최후일격에 의해 라틴아메리카는 미제국주의의 무덤이 될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이 무슨짓을 저질렀는지 제대로 모르고있다. 아직도 미국을 강대국으로 믿으며 오만에 사로잡혀 폭력을 일삼는데 어떤 합리적사고가 가능하겠는가. 지금이라도 트럼프와 그세력이 정치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일단 동반구의 일에 더이상 개입하지않는것, 구체적으로 동반구에 널려있는 미군기지들을 철거하는것이고 극초음속미사일의 멍잇감에 불과한 항모단을 동반구에서 영원히 추방하는것이다.

그리고 반제자주, 민중민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전략, 서반구요새화전략에 의거해 멕시코를 비롯해 중남미의 국가들을 장악하겠다는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가를 하루빨리 깨닫고 모든 군사적도발과 경제적침탈을 당장 멈추는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미쇼비니스트도 <또다른딥스테이트>일뿐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파멸해 가고있는 글로벌리스트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될것이다.

트럼프세력, 미쇼비니스트는 대세를 옳게 보고, <국제경찰>노릇도 모자라 <국제깡패>짓을 하고있는 망동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역사와 현실이 입증하듯이, 이세상의 주인은 민중이다. 미국민중을 비롯해 세계인류를 적으로 만드는 어떤 행동도 스스로의 목을 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뿐이다. 트럼프정부로부터 시작된 도미노의 끝은 민중이 진짜 주인이 되는 세상, 혁명이다.







〈돈로주의〉와 〈전략적인내〉

조덕원 2026.1.12

〈돈로주의〉는 사실 상식이다. 잘 알다시피, 이〈신면로주의〉의 별칭은 도널드트럼프에서 나왔다. 트럼프정부의 외교정책을 한마디로 잘 설명한다. 국가안보전략(NSS)의 요점이고 실제로 그렇게 가고있다. 유라시아가 아니라 아메리카를 비롯한 〈서반구〉에 집중한다. 그린란드만 빼면 그냥 서반구가 아니라 아메리카다. 연초에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그린란드를 노리는만큼, 2026 가장 중요한 목표중 하나다. 올해는 11월중간선거가 있다. 트럼프정부의 관심은 정치적으로 선거, 경제적으로 유가에 집중돼있다.

트럼프의 기본인식은 미국이 위기라는것이다. 국가부채만 38조달러니 당연하다. 중국은 이미 G2고 러시아도 살아났다. 사회주의조선이 핵미사일최강국인점도 두렵다. 영화 〈하우스오브다이내마이트〉는 현 미국민의 공포를 그대로 보여준다. 트럼프는 러시아의 동유럽, 중국의 동아시아를 그들의 〈나와바리(영역)〉로 본다. 그리고 아메리카를 자신의 나와바리로 만들려한다. 가지고있는 칩과 카드를 여기에 올인한다. 연말연시 미국의 행보는 바로 이국가안보전략대로 진행됐다.

이미 다극시대다. 미국의 세계패권은 깨진지 오래다. 떠오르는 중국·러시아와 적절히 타협하며 잘 지내야한다. 이점에서 트럼프세력, 미소비니스트는 이른바〈글로벌리스트〉와 확연히 다른 정세인식을 갖고있다. 글로벌리스트는 러시아·중국·조선을 상대로 기여이 전쟁을 벌여 〈신냉전〉체제를 완성하고자 한다. 동유럽전·서아시아전은 진행중이니 동아시아전만 일으키면 된다. 허나 반제진영은 제국주의진영이 생각한것보다 훨씬 강했다. 글로벌리스트의 무모한 전쟁책동을 크게 우려하는 인식이 미국에 쇼비니스트정권을 세웠고, 지난 1년간 그직전과는 다른결의 상황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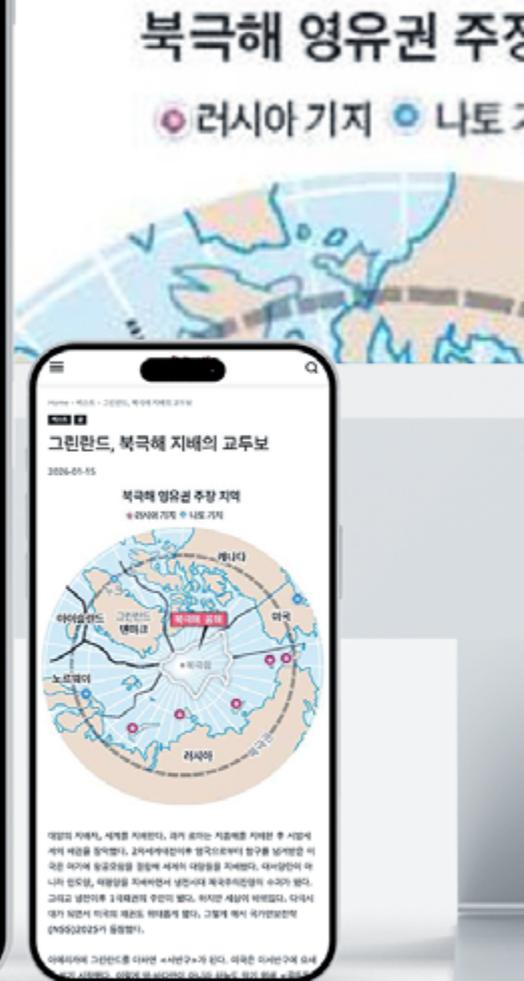
트럼프세력이 베네수엘라·그린란드를 비롯한 서반구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자, 중국과 조선, 러시아가 그에 반응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12.29~31 중국의 대만포위전훈련과 1.4 조선의 극초음속미사일발사시험, 1.8 러시아의 오레쉬니크 르보프유럽최대 가스저장시설타격이 그것이다. 미국이 유라시아에서 러시아·중국·조선의 이니셔티브를 인정하겠다고 하니, 마지막으로 유인책·기만책인지만 최종검토하면 되게 됐다. 〈전략적인내〉를 끝낼때가 다가오고있다. 동아시아전가능성이 그어느때보다도 높아졌다.

전체보기 글 사실 정치 통일 세계반제폭력

Home > 베스트 > 그린란드, 북극해 지배의 교두보

베스트 글

그린란드, 북극해 지배의



그린란드, 북극해 지배의 교두보

조덕원 2026.1.15
최신기사

대양의 지배자, 세계를 지배한다. 과거 로마는 지중해를 지배한후 서방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다. 2차세계대전이후 영국으로부터 항구를 넘겨받은 미국은 여기에 항공모함을 결합해 세계의 대양들을 지배했다. 대서양만이 아니라 인도양, 태평양을 지배하면서 냉전시대 제국주의진영의 수괴가 됐다. 그리고 냉전이후 1극패권의 주인이 됐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다. 다극시대가 되면서 미국의 패권도 위태롭게 됐다. 그렇게 해서 <국가안보전략(NSS)2025>가 등장했다.

아메리카에 그린란드를 더하면 <서반구>가 된다. 미국은 이서반구에 요새를 쌓기 시작했다. 이렇게 땅·바다만이 아니라 하늘도 막기 위해 <골든돔>을 만들기로 했다. 이<서반구요새화전략>이 NSS2025의 핵심이다. 이미 다극시대에 1번도 이론적 없는 <동시승리전략>따위는 던져버리고, 유라시아를 포기하고 아메리카만 챙기겠다고 선언한것이다. 이 영악하고 매우 실리적인 사고발상이 바로 트럼프적사고, 이것이 <신면로주의(돈로주의)>로 불리는 <트럼프코롤러리(Trump Corollary)>다.

미국이 포함한 북미는 전략적지역이다. 멕시코를 생산기지로 만드는게 포인트다. 중미는 안보차원에서 중요하고, 남미는 자원기지다. 여기서 베네수엘라는 중심고리, <린치핀(Linchpin)>이다. 그린란드는 북극해를 지배하는데서 전략적교두보다. 레이더·요격미사일기지로써도, 원유·희토류매장지로서도 중요하다. 이<서반구>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않고, 확실한 <나와바리(영역)>로 만들겠다는 선언이 NSS2025이다. 베네수엘라·이란원유를 장악하고 그린란드를 소유하면 11월중간선거에서 이길수 있다는 속심이 읽힌다.

대신 유라시아는 접는다. 중국이 대만, 조선이 <한국>을 통일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합하는것을 용인한다. 어차피 힘으로 안되는일이다. 이미 세계대전이 진행중, 유엔현장과 국제법은 무시한다. 목표가 쏘이니 그달성을 위해 달린다. 그렇게 해서 1.3<절대적결의>작전이 결행됐고, 그린란드장악을 선포했고, 이란을 계속 흔들고있다. 중국·조선·러시아도 발빠르게 반응하고있다. 대만포위훈련이 전개되고, 극초음속미사일 발사훈련과 공격이 진행됐다. 전쟁의 시대, 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있다.

교두보

지역

까지

캐나다



국가안보전략2025로 인한 도미노

| 조덕원 2026.1.19

〈트럼프의첫충격〉은 세계정세에 커다란 도미노현상을 일으키고있다. 반제진영을 강화하고, 제국주의진영을 약화시키며, 동아시아전을 촉진하며 3차세계대전의 본격화를 앞당기고있다. 트럼프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2025〉는 〈인도태평양전략〉에서 〈서반구요새화전략〉으로, 유라시아에서 아메리카로 전략의 초점을 이동시켰다. 미국이 서반구에 역량을 집중한다는것은 동반구에 집중하지않는다는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연말에 대만포위훈련, 조선과 러시아는 연초에 극초음속미사일발사 훈련을 전개했다. 중국과 조선, 러시아의 대응이 심상치않다.

첫째, 반제진영의 강화다. 트럼프정부의 NSS2025와 그에 따른 연말연시의 조치들이 결과적으로 반제진영을 강화시키고있다. 서반구요새화전략에 의거해 베네수엘라를 폭격하고 마두로대통령을 납치한후 바로 그린란드를 소유하겠다고 나서면서 반제진영이 보다 각성하고 단결하며 그역할을 높이고있다. 여기에 이란〈색깔혁명〉 시도까지 겹치면서 이러한 흐름은 더욱 촉진되고있다. 트럼프세력이 11월중간선거라는 절대적시한에 쫓기면서 새해벽두부터 전격전·속도전을 펼치는만큼 반제진영의 대응강도·속도도 높아질수밖에 없다.

둘째, 제국주의진영의 약화다. 트럼프정부의 서반구중심전략은 동반구, 유라시아에 포진해있는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고있다. 미국이 서아시아전에서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전에서 발을 빼려고하고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않도록 중국·조선에 유화적인 태도를 견지하고있다. 특히 그린란드건은 당장 나토회원들인 미국과 유럽연합간의 분쟁이 자칫 군사적충돌로까지 번질 위험을 안고있다. 이미 트럼프정부의 〈관세전쟁〉으로 인해 불만이 고조되고있는 유럽연합국들의 미국에 대한 반감이 위험계선에 육박하고있다.

셋째, 3차세계대전본격화의 촉진이다. 트럼프정부가 유라시아에서 아메리카로 전선을 이동시키면서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중국과 조선의 〈전략적인내〉정책에서 결정적변화가 제기되고있다. 중국과 조선은 각각 대만과 〈한국〉에 대한 영토완정의 숙원이 있으며 오랫동안 전략적으로 그힘을 준비해왔다. 트럼프정부가 〈신에치슨 라인〉을 그으며 불간섭원칙을 천명한만큼, 2026은 동아시아정치지형에 새로운 전략적변화가 일어나는 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차세계대전이 본격화될때, 미국의 소극적인 입장은 제국주의진영에게 치명타가 된다. 중국과 조선, 러시아가 모를리 없다.

이란전은 곧 대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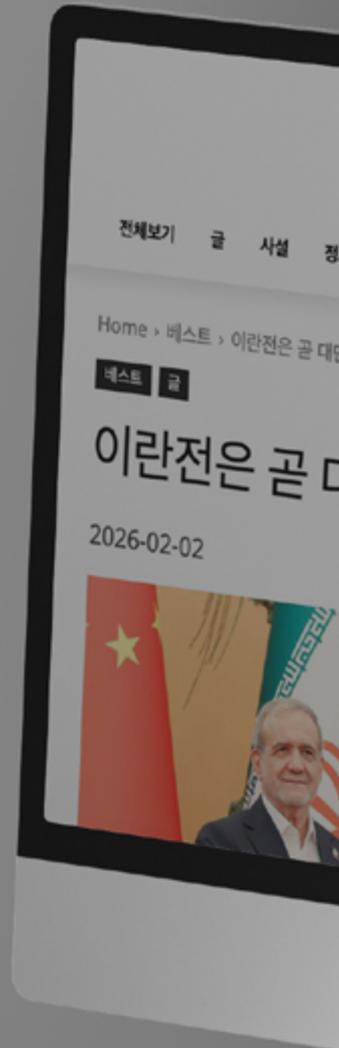
| 조덕원 2026.2.2

이란전은 수렁이다. 미국에게 악몽이고 재앙이다. 미국은 코리아전, 베트남전, 아프간전, 이라크전이 그랬다. 이란전은 더할것이다. 이란은 미사일 강국이다. 단순히 방어만 하는것이 아니라 공격도 할것이다. 2.1 하메네이가 <지역전쟁>을 경고한것은 우연이 아니다. 빈말도 아니다. 서아시아(중동)내 미군기지들이 모두 불탈것이고 이스라엘도 그 군사·정보·경제의 주요거점들이 가루가 될것이다. 그렇다고 이란을 상대로 핵공격을 할수 없다.

핵공격자체의 정치적부담도 크지만, 이란도 핵반격을 할수 있기때문이다. 이란이 스위스공관을 통해 핵무장사실을 여러나라에 통보했다는 미확인 뉴스가 있다. 이란보다 뒤쳐진 파키스탄도 핵무장에 성공했다. 파키스탄의 핵공유제안을 이란이 거절한 사실도 잘 이해해야한다. 핵공격위협에 늘 시달리는 이란이 핵무장을 안했다는것이 이상하다. 이란의 미국과의 협상은 과거의 핵이 아니라 미래의 핵이다. 조선이 과거 미국과 진행했던 그길을 따라가고있다.

미국은 애써 <서반구중시전략>을 수립해, 맹렬히 관철중이다. 1월은 베네수엘라침공으로 시작했고, 그린란드건으로 시끄러웠으며, 쿠바마저 봉쇄 강화로 압박수위를 높이고있다. 서반구를 확실히 장악하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그런 미국에게 이란전은 또다시 <동반구중시전략>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이란전에 발목이 잡혀서는 동아시아전이 발발했을때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진다. 서반구로의 선택과 집중도 당연히 어려워진다. 트럼프가 협상을 운운하는것이 기만술이나 레토릭으로 읽히지않는 이유다. 2.2 이란 파르스통신은 페제시키안대통령이 <미국과의협상개시를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중국에게 정말 중요하다. 베네수엘라가 중요해도 이란만큼은 아니다. 이란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원유수입국, 경제의 생명선이다. 중국의 이란에 대한 결정적지원은 무기나 통신이 아니라 대만전이다. 대만전이 터지면 <한국>전도 터지고, 이동아시아전은 서아시아전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확 꺾어버릴것이다. 대만전은 이란전이 베네수엘라전보다 훨씬 밀접하다. 한마디로 이란전이자 대만전이다. 3차세계대전의 본격화다. 트럼프가 그간 피하려했던 길이다.





새만전



최신기사



김정은총비서, 화성지구4단계1만세대살림집준공식 참석

통일



일본-캐나다, 우크라이나에 6억 9000만달러 투입

국제



이스라엘 휴전위반으로 가자지구에서 600명이상 학살

국제

러시아에게 발트3국점령은 쉬운일

| 조덕원 2026.2.6

러시아가 발트3국을 쉽게 점령한다? 너무 당연하지않은가. 그래도 <가짜뉴스>들이 판치는 세상이니 진실을 확인하는 의의는 있겠다. 독일등 유럽연합에서 국방비를 더 지출하고 전쟁준비를 서둘러야한다는 속셈에서 나온 뉴스다. 최근 독일언론과 국방대위게이밍센터가 공동으로 실시한 가상위게임의 결과다. 그요점은 러시아가 리투아니아의 전략적요충지 마리아폴레를 3일만에 점령하며 1만5000병력으로 손쉽게 발트3국과 유럽본토를 단절시킨다는것이다. 흥미로운것은 미국이 나토상호방위조약5조를 거부하며 개입하지않았다는것이다.

미국의 불개입도 전혀 놀랍지않다. 트럼프정부는 2025.11 <서반구요새화전략>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안보전략(NSS)2025>를 발표했다. 서반구를 중시한다는것은 동반구를 경시한다는것이다. 유라시아-인도태평양중시전략에서 아메리카-카리브해중시전략으로 전환됐다는것이다. 그러니 발트3국을 점령하는데 왜 개입하겠는가. 이런데 개입하는 순간, <서반구중시>가 <동반구중시>로 되돌아간다. 전략이 전술로 바뀌는것이다. 미국은 이미 진행중인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어떻게든 발을 빼려한다.

이것은 이란전도 마찬가지다. 만약 이란전이 제대로 터진다면, 역시 서아시아(중동)전의 늪에 빠지게 된다. 미국이 서아시아에서 베트남전을 능가하는 전쟁에 말려들어 허우적댄다면 중국에게는 대만전을 결행할 최적의 기회가 된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대만전이 터지면 그즉시 <한국>전도 터진다. 그것이 조국통일전이든 <평정전>이든, 중국과 조선에게는 영토완정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는것이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트럼프정부가 수령에 제발로 들어갈리가 없다. 트럼프와 그세력은 이 어리석은 모험을 할만큼 바보가 아니다.

동아시아전이 터진다는것은 중국과 조선이 <전략적인내>를 제때에 접는다는것이고, 이는 자연히 러시아와 이란의 전략적인내도 접게 만들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발트3국을 비롯한 구소련지역을 수복하고, 중유럽과 북유럽의 국가들로 하여금 나토에서 탈퇴하도록 강제할것이다. 이란도 이스라엘에 대한 결정적패배를 안길것이다. 미국·유럽제국주의, 나토는 동아시아든 동유럽이든 서아시아든 단1군데서도 승리하지못하며 치명적패배를 맞고 난파선처럼 가라앉게 될것이다. 2026, 곳곳에서 징후가 강력하다.

Home > 글 > 러시아에게 발트3국점령은 쉬운 일

글 | 케스트

러시아에게 발트3국점령은 쉬운 일

2026-02-06



러시아가 발트3국을 쉽게 점령한다? 너무 당연하지않은가. 그래도 <가짜뉴스>들이 판치는 세상이니 진실을 확인하는 의의는 있겠다. 독일등 유럽연합에서 국방비를 더 지출하고 전쟁준비를 서둘러야한다는 속성에 서 나온 뉴스다. 최근 독일연방과 국방대위계약이행본타가 공동으로 실시한 가상위게임의 결과다. 그요점은 러시아가 리투아니아의 전략적요충지 마리아몰레를 3일만에 점령하며 1만5000명력으로 손쉽게 발트3국과 유럽본토를 단절시킨다는 것이다. 흥미로운것은 미국이 나토상호방위조약5조를 거부하여 개입하지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불개입도 전혀 놀랍지않다. 트럼프정부는 2025.11 <서반구요새화전략>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안보전략(NSS)2025>를 발표했다. 서반구를 중시한다는것은 동반구를 경시한다는것이다. 유라시아-인도태평양중시전략에서 아메리카-카리브해중시전략으로 전환했다는것이다. 그러나 발트3국을 점령하는데 왜 개입하겠는가. 이인데 개입하는 순간, <서반구중시>가 <동반구중시>로 되돌아간다. 전략이 전술로 바뀌는것이다. 미국은 이미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어떻게든 발을 빼려한다.

이것은 이란전도 마찬가지다. 만약 이란전이 제대로 터진다면, 역시 서아시아(중동)전의 늪에 빠지게 된다. 미국이 서아시아에서 베트남전을 능가하는 전쟁에 밀려들어 허우적댄다면 중국에게는 대만전을 결행할 최적의 기회가 된다. 그리고 필립피니, 대만전이 터지면 그즉시 <한국>전도 터진다. 그것이 조국통일전이란 <평정전>이든, 중국과 조선에게는 영토완정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는것이다. 이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트럼프정부가 수형에 제발로 들어갈라가 없다. 트럼프와 그세력은 이 어리석은 모험을 할만큼 바보가 아니다.

동아시아전이 터진다는것은 중국과 조선이 <전략적인내>를 제때에 잡는다는것이고, 이는 자연히 러시아의

최신기사



김정은총비서, 화성지구4단계1만세 대살일집중공식 참석

2026-02-17



일본 캐나다, 우크라이나에 6억 9000만달러 투입

2026-02-17



이스라엘 휴전위협으로 가자지구에서 600명이상 학살

2026-02-17



미국 카리브해지역군사비 급증, 하루 2000만달러 지출

2026-02-17

사실



희망상세하는 미제국주의는 결국 타도될 것이다

2026-01-31



제국주의의 침략을 계속회하는 <신연로주외>

2026-01-24



미제국주의의 침공과 약탈에 굳건히 맞서는 베네수엘라인중

2026-01-16



스스로 거짓임을 인정한 미제국주의

2026-01-09

칼럼



다카에치, 동야권을 부른다

2026-02-10



남방이것을 끌어내어 산다

2026-02-10

알아야한다, 알고있다

| 조덕원 2026.2.9

트럼프는 알아야한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필연적후과로 자신에게 어떤 치명적결과가 차레지는지를. 지금 트럼프미정부는 대이란군사적도발중이다. 이 무모한 도발이 실제전쟁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지만, 호전세력이 엄존하고 그피해가 치명적인만큼 최악의경우에 대비해야 맞다. 일은 그렇게 진행되고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미정부는 대쿠바석유봉쇄도 위태롭다. 오늘 인류는 서아(아시아)와 중미(아메리카), 2군데서 위협천만한 전쟁화점이 형성되고있다.

이란은 결코 전쟁을 원치않지만, 미제국주의에 의해 이란전이 터진다면 그즉시 지역전쟁으로 확대될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의 언급은 <블러핑>일수 없다. 이라크에서 아랍에미리트로 연결되는 페르시아만의 미군기지들이 이란미사일들의 1차타격목표가 될 것이다. 동시에 서아에서 전쟁의 화근이고 만약의 근원인 이스라엘시온니스트를 향한 미사일공격이 진행될것이다.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랍코가 불타면,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 200달러까지 치솟는다는것을 누구나 예상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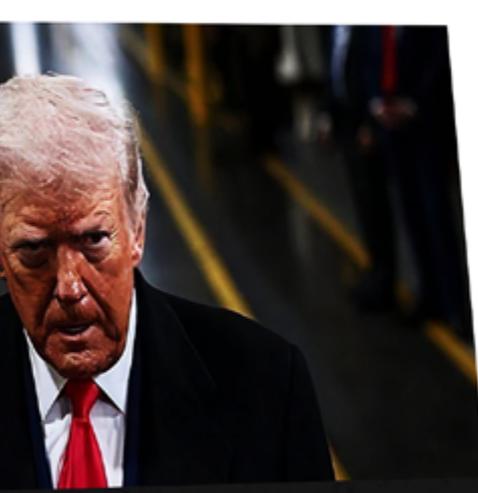
미국은 이란전이 이라크전의 10배이상 심각한 전쟁이라는것을 모르지 않는다. 유가가 이렇게 폭등하면 그렇지않아도 물가폭등으로 지지율이 31%까지 떨어지고 텍사스에서 31%나 지지율이 폭락하며 패배한 선거가 11월에 재현될것이고, 트럼프는 완벽한 <레임덕>을 맞게 될것이다. 이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실리아대통령부부를 납치한 희대의 만행으로 라틴국가들을 적으로 만들고 라티노유권자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는 트럼프세력이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연이은 ICE의 미국시민살해사건과 폭발잠재력이 큰 엡스틴파일공개도 한몫하고있다.

분명한것은 이란전을 비롯한 서아전과 베네수엘라전 또는 쿠바전을 비롯한 중미전은 어느것이든 하나만 터져도 무조건 중국의 대만전, 조선의 <한국>전을 자동으로 촉진해 동아시아전으로 이어진다는것이다. 오늘날 전쟁은 첨단전의 성격상 빛의 속도로 확대된다. 트럼프정부는 <서반구 중시전략>을 선포하고는 동반구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다 온갖 비난을 받고 자멸하게 될 운명인지의 여부가 곧 판가름날것이다. 트럼프정부가 전쟁이 아니라 협상을 선택하는것이 합리적인 이유다. 서산낙일의 미국이다. 트럼프도 알고있다.





있다



최신기사



김정은총비서, 화성지구4단계1만세대살림집준공식 참석

통일



일본·캐나다, 우크라이나에 6억 9000만달러 투입

국제



이스라엘 휴전위반으로 가자지구에서 600명이상 학살

국제



미국 카리브해지역군사비 급증, 하루 2000만달러 지출

국제

다카이치, 동아전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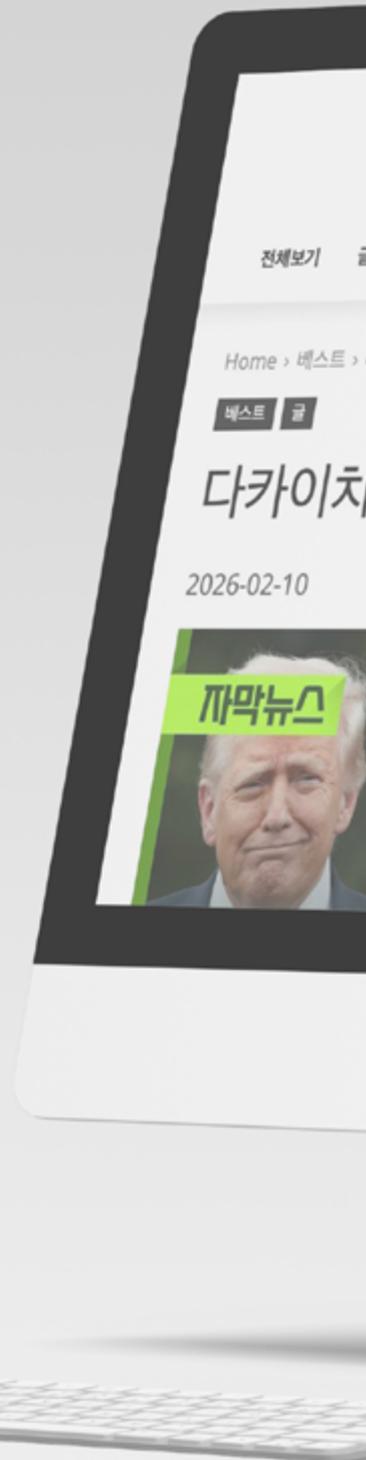
| 조덕원 2026.2.10

다카이치가 전쟁을 부른다. 다카이치의 선거는 압승으로 끝났다. 다카이치의 인기가 자민당을 단독과반으로 만들었다. 참의원선거가 남았지만, 연정 세력의 개헌선도 확보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나에노믹스>의 인기가 높다. 역시 경제이슈가 가장 중요하다. 금리를 올릴수밖에 없기에, <확장재정>의 인플레이션정책과 국방분야·첨단산업에 집중투여하겠다는게 먹혔다. 그리고 <대만유사일본유사>가 있다. 일본열도를 강력·풍요롭게 하겠다니 일단 몰표를 줬다.

어느때보다 긴장된 시절이다. 특히 열강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동북아에서 일본민심도 강력한 리더십을 찾는다. 누군가에 의해 암살된 아베, 그시절을 그리워하며 그후계자에게 다시 기대를 건다. 한번은 기회를 줄만하다고 보는것이다. 미국도 알고있었을것이다. 트럼프도 다룰만하다 판단했을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시바는 희생플라이가 맞다. 진짜는 그뒤에 온거다. 마치 프랑스에서 올랑드 다음 마크롱이 된것과 같다. 허나 그지지울 지금 20%대다. 올랑드는 더 심각했지만 마크롱도 결국 그길로 간다. 다카이치도 마찬가지로 일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을 자극하는게 문제다. 중일관계는 더욱 대립되게 됐다. 다카이치는 이것으로 당선됐다. 기본노선이 달라질수 없다. 그렇게 되는 순간 지지율은 반토막난다. 반중노선은 앞으로 내내 일관되게 강화될것이다. 미국은 일본을 이렇게 내몰면서도 극단적인 상황은 피하려한다. 미국은 이미 <국가안보전략2025>와 <국가방위전략2026>으로 서반구중시전략을 선포했다. 이는 동반구를 점진적으로 포기한다는 뜻이다. 이미 <한국>은 <제1도련선>에서도 제외됐지만, 대만도 <신애치슨라인>의 밖에 있다. 미국은 <한국>전은 물론, 대만전에도 개입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당연히 일본도 따라간다.

다카이치의 압승으로 동아(아시아)에서의 군사적긴장도가 더 높아졌다. 이란전이 터지면 서아전, 베네수엘라·쿠바전이 터지면 중미(아메리카)전이다. 서아전이든 중미전이든 어느 하나만 터져도 동아전이다. 미국도 알고 일본도 안다. 과연 <한국>은 아는가. 이재명정권은 시간이 없다. 5개의 <경제시한폭탄>의 연쇄폭발을 앞두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한다. 보안법철폐, 미군 철거, 크게 나아가지않으면 앞서서 죽는다. 전쟁은 불가피하고 <한국>은 준비되지않았다. 제때 제대로된 결단이 내려지면 살고 그렇지못하면 죽는다.





다카이지, 동아전을 부른다

다카이지, 동아전을 부른다



최신기사



김정은총비서, 화성지구4단계1만세대살림집준공식 참석

통일



일본·캐나다, 우크라이나에 6억 9000만달러 투입

국제



이스라엘 휴전위반으로 가자지구에서 600명이상 학살

국제



미쇼비니스트, 서아전과 중미전으로 3차세계대전의 본격화를 앞당기는가

정진

제국주의진영은 이른바〈글로벌리스트〉와 이른바〈쇼비니스트〉로 갈라져있다. 글로벌리스트는 사민주의우파를, 쇼비니스트는 보수주의파를 주축으로 삼고있다. 글로벌리스트는 쇼비니스트를 파시스트라고 비난한다. 쇼비니스트가 파쇼정책의 최저선인 외국인(外國民)에 대한 박해를 하는것은 사실이지만, 글로벌리스트는 그최고선인 외국가(外國家)와의 전쟁을 추진중이다. 글로벌리스트는 가장 악질적인 파시스트인 우크라이나의 신나치와 이스라엘의 시오니스트를 조종해, 교활한 대리전방식으로 야수적인 전쟁을 벌이고있다. 현시대의 대표적인 파시스트는 글로벌리스트다.

글로벌리스트는 소련·동구가 무너지고 〈1극체제〉하에 미국중심의 세계화를 추진했다. 그래서 당연히 유라시아를 통째로 장악하는것을 주된 전략으로 삼았고, 〈유라시아포위환전략〉, 〈피벗투아시아전략〉, 〈인도태평양전략〉은 그구체적표현들이다. 그러다가 중국·러시아의 역량이 강화되며 〈다극체제〉로 전환돼 가는 동시에 미국의 국가부채급증등 경제적위기가 심화되자 미국·유럽에서 쇼비니스트에 민심이 쏠리며 그권력이 강화됐다. 트럼프미정부의 출현은 그대표적현상이다.



〈미국우선주의〉·〈MAGA〉의 기치아래 집권한 미쇼비니스트세력은 〈국가안보전략(NSS)2025〉와 〈국가방위전략(NDS)2026〉을 발표하며 서반구를 선택해 집중하겠다고 선언한다. 이는 미제국주의의 전략이 글로벌리스트의 〈동반구중시〉에서 쇼비니스트의 〈서반구중시〉로 전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국주의진영의 우두머리인 미국의 전략적노선이 이렇듯 갈지(之)자행보를 하면서 제국주의진영은 분열과 약화가, 그반대로 반제진영은 각성과 강화의 속도가 빨라졌다.

서반구를 중시한다는 것은 곧 동반구를 경시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패권이 급격히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퇴각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만약 트럼프미정부가 이란전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동반구중시로 회귀하는 전략적실책을 범하는 것이 된다. 이란전·서아(아시아)전은 중국의 대만전과 조선의 〈한국〉전, 다시말해 동아전을 결정적으로 촉진한다. 중미(아메리카)전, 즉 베네수엘라·쿠바와 전쟁을 벌여도 마찬가지다. 쇼비니스트가 도발중인 서아전·중미전은 동아전을 촉진하며 3차세계대전의 본격화를 앞당긴다. 이렇게 되면 3차세계대전의 도발자에 글로벌리스트만이 아니라 쇼비니스트도 그이름을 올리게 된다.



〈눈물의길〉이라고 불리는 체로키족 강제이주 모습

고립주의에서 팽창주의로

1783 독립을 승인받은 미국은 강력한 해군력을 가진 영국, 남쪽과 서쪽을 포위한 스페인, 동맹이었으나 잠재적위협이었던 프랑스 사이에 끼어있는 처지였다. 초기 미국은 물리적군사력보다 지정학적이점과 외교적중립을 국가안보의 핵심가치로 삼았다. 초대대통령 워싱턴은 1796 고별사에서 유럽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상시적인 분쟁에 휘말리지말라는 〈영구적 동맹회피〉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미국안보를 위한 대원칙으로 자리잡았다. 단순히 문을 닫는 폐쇄주의가 아니라 국력이 약한 신생국이 강대국의 전쟁에 끌려가 국력을 소진시키는것을 막기 위한 철저한 실용주의적안보전략이었다. 이원칙은 100년 넘게 미국외교의 근간이 됐다. 1803 제퍼슨대통령은 프랑스의 나폴레옹으로부터 루이지애나영토를 매입한다. 미시시피강의 통제권을 확보하고 유럽열강이 북미대륙내부로 침투할 경로를 차단한 전략적완충지대확보였다. 이로써 미국은 서부로의 진출로를 여는 동시에 외부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보호할수 있게 됐다. 영국의 해상봉쇄와 미해군징집문제로 발발한 1812전쟁은 미국안보전략의 전환점이 된다. 워싱턴DC가 함락되고 백악관이 불타는 수모를 겪으며 미국은 상비군의 필요성과 연안방어체계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전쟁이후 미국은 해군력을 증강하고 국경요새를 강화하며 자강중심안보체계를 구축한다. 국내산업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영국과 화친하려했던 연방당은 전쟁을 반대하다 몰락했다. 1823 먼로대통령이 선포한 〈먼로독트린(먼로주의)〉은 초기미국안보전략의 정점이었다. 유럽열강의 아메리카대륙에 대한 추가적식민지건설과 간섭을 거부하며 이를 미국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한것이다. 1829 집권한 잭슨은 이를 물리적으로 집행한 인물이다. 잭슨은 안보의 최대위협을 내부의 분열과 미개척지의 불확실성으로 봤다. 그는 1830 〈인디언이주법〉을 통해 동부 원주민을 미시시피강 서쪽으로 강제이주시키며 내부적교전가능성을 제거하고 백인정착민중심의 영토적통합을 강행했다. 이는 1840년대 〈명백한운명(Manifest Destiny)〉이라는 팽창주의이데올로기로 이어진다. 미국이 북미대륙전체를 지배하는것이 신의 섭리라는 이신념은 텍사스합병과 멕시코전쟁(1846~48)을 정당화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은 태평양연안까지 영토를 확장하며 외세가 넘볼수 없는 거대한 〈대륙적완충지대〉를 완성했다. 대륙평정이후 미국의 안보경계선은 대양으로 뻗어나갔다. 남북전쟁을 계기로 파편화된 연방이 통합된 산업국가로 거듭났다. 안보전략도 〈방어적고립〉에서 〈대륙적패권〉확립으로 이행한다. 19세기말 생산력의 증대는 새로운 시장과 해상로 확보를 요구했다. 미해군제독 전략지정학자 머헨은 〈해양강국론〉(1890)을 통해 해군력이 국가안보의 핵심임을 역설했다. 1898 매킨리행정부의 미국-스페인전쟁은 이러한 전략이 현실화된 변곡점이다. 전쟁결과 쿠바를 보호령화하고 필리핀-괌-푸에르토리코를 획득한 미국은 대륙국가를 넘어 제국으로 나아갔다. 이는 루스벨트의 〈큰몽둥이(Big Stick)〉정책에서 정점에 달했다. 그는 1904 〈루스벨트코롤리리(추론)〉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질서유지를 위해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국제경찰력〉행사를 선언하며 먼로독트린을 방어에서 개입으로 재정의했다. 파나마운하권을 확보해 양대양사이의 함대기동성을 극대화했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워싱턴의 〈회피〉에서 잭슨과 팽창론자들의 〈대륙요새화〉, 그리고 루스벨트의 〈해양지배〉로 이어지는 철저한 힘의 논리에 기반했다. 이는 〈도덕적명분〉보다 자국의 이익과 지정학적완충력을 우선시했던 현실주의안보의 완성기였으며 오늘날 미패권의 역사적뿌리중 하나가 됐다.



1775

• 1775 대륙회의 미국독립전쟁 ~1783 1776 미국독립선언 1777 연합규약

• 1787 필라델피아헌법제정회의 1789.4.30 워싱턴미대통령 연방당 ~1797.3.4

1790

• 1790 현워싱턴DC지역으로수도이전결정
1796 워싱턴고별사<외부세계의어느지역과도영구적인동맹을피하는것이진정한정책>중립적독립적외교노선강조

• 1800 수도이전 1803 미루이지애나 미시시피강서쪽 매입 1809 메디슨미대통령 민주당 ~1817

• 1812 미영전쟁 캐나다국경확정

• 1823 <먼로독트린> <먼로주의> 1829 잭슨미대통령 민주당 ~1837

1836

• 1836 텍사스혁명·텍사스공화국수립 1839 오설리번<신성한운명>

• 1845.3 포크미대통령 민주당 ~1849 12 텍사스합병 12.27 오설리번칼럼<명백한운명>
1846.4 미멕시코전쟁 ~1848

1861

• 1861.3.4 링컨미대통령 공화당 ~1865.4.15 4 남북전쟁 ~1865.4 1865 링컨암살 1867 미알래스카매입
1869 그랜트미대통령 공화당 ~1877

• 1871 컬럼비아구기본법 District of Columbia Organic Act of 1871

• 1886.5 시카고<8시간노동>총파업

1895

• 1895 미대법소득세법위헌판결 1897.3.4 매킨리미대통령·루스벨트미부통령 공화당 ~1901.9.14 1898 미스페인전쟁

1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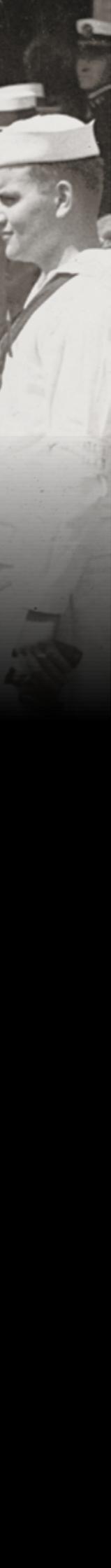
• 1901.9.14 매킨리암살 루스벨트미대통령 ~1909.3.4 1903 파나마독립·미파나마운하지대권확보
1904 <루스벨트코롤러리> 1905.7 가쓰라테프트밀약



〈자유주의국제질서〉 글로벌리스트로의 변모

1919 베르사유평화회의의 참석후 돌아온 윌슨

1917 1차세계대전막바지 윌슨미대통령은 〈민주주의에안전한세계를만들기위한전쟁〉·〈모든전쟁을끝내기위한전쟁〉이라며 참전했다. 사이크스피코협정등 영국·프랑스제국주의국가들의 비밀협약이 추진되는등 전후 더 많은 전리품을 차지하기 위한 협상들이 은밀히 진행됐다. 미국은 〈민족자결〉·〈국제연맹창설〉등 14개평화원칙을 내세우며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겠다고 나섰지만 실상은 참전을 해야 발언권을 가질수 있다는 정치적판단에 의한것이였다. 1917.4 선전포고틀 의회에 요청하기직전인 2.28 윌슨은 백악관에서 만난 민간지도자들에게 〈전쟁에참여해야평화협상태이블에자리를 차지하게될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2월혁명으로 독일동부전선의 전쟁상태가 종료될경우 독일이 서부전선에 전력을 집중할수 있었다. JP모건은 영프등연합국측에 15억달러이상의 전쟁차관을 주선하고 유럽교전국에 50억달러규모의 군수물자를 제공, 인수업무를 끝마쳤으나 그자금을 회수하지못할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었다. JP모건과 윌가의 〈머니트러스트〉는 1907공황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1913.12 미연준(Fed)설립까지 이뤄내면서 미정부에 대한 로비력을 자랑했다. 3.5주영국미대사는 윌슨에게 밀서를 보내 JP모건이 처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일개민간기관이 감당하기에는 상황이 엄청나다고 하면서 미국이 참전한다면 영프에 차관을 제공할수 있을것이고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1차세계대전에서 미국은 막대한 전쟁특수를 누렸다. 미국은 전쟁이전시기 채무국에서 전쟁이후 세계최대의 채권국이 됐고 미국의 은행과 군수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이윤을 취했다. 히틀러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전운이 감돌던 1934~36 나이상원의원에 의해 미상원에서 추진된 군수산업특별위원회 〈나이위원회〉는 청문회를 통해 미국의 참전이유는 민주주의도 평화도 아닌 미국의 제국주의적영향력확대와 대기업의 이윤을 위한것이였음을 폭로했다. 〈나이보고서〉는 JP모건·록펠러·듀폰등이 전쟁을 통해 얻은 이윤에 대해 밝혔다. 전후 윌슨은 실제 〈민족자결〉을 주창하면서도 러시아10월혁명직후 러시아에 미군을 투입하며 제국주의개입정책을 실시했다. 윌슨은 국제연맹창설로 전후 패권적지위를 도모하려했으나 미국민들은 1차세계대전이전까지 유럽에서 일어나는일에 무관심했고 미의회는 국제연맹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다. 1차세계대전에서의 독일패배로 견함경쟁은 영국·미국·일본간 태평양에서의 주도권싸움이 됐다. 1921~22 워싱턴해군군축회의는 물리적힘의 배분을 통해 잠재적적국을 통제하려는 최초의 다자간안보협정으로 이를 통해 일본의 주력함보유비율을 억제했다. 또 미·영·프·일4개국조약으로 태평양에서의 현상유지와 영일동맹폐기에 합의하고 1922 미·일·중등9개국조약체결로 중국의 문호개방과 일본의 중국내독점적권리를 부인했다. 미국은 건국이후100여년간 먼로독트린의 〈고립주의〉속에 서반구에서의 배타적영향력을 공고히 해왔다. 건국 이래 계속돼온 미국의 확장정책은 이시기 세계무대에서 윌슨의 〈이상주의외교〉·〈도덕적국제주의〉로 치장됐다. 국가간협력, 군축, 그리고 〈민족자결〉로 대표되는 〈윌슨주의〉는 현대자유주의국제관계이론의 기초로 돼 약소민족들에게 독립의 희망을 주기도 했지만 실상은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질을 가리는 위선이였다. 미국은 1903 파나마독립을 지원했는데 그목적은 파나마운하통제권을 얻기 위한것이였다. 먼로독트린이 상대적약자인 미국이 열강의 개입을 거부하며 아메리카대륙, 서반구의 지배권을 노렸던것처럼 이제 미국은 절대적패권을 위한 첫발을 뗐다. 2차례의 세계대전은 미국을 〈서반구외수호자〉에서 〈국제질서의최종조정자〉로 변모시켰다.



1907

• 1907 금융공황

1909

• 1909 16차수정헌법(소득세)미의회통과

• 1913.2.25 16차수정헌법비준 3 월슨미대통령 ~1921 12.23 미연준

• 1914.7 1차세계대전

• 1915 사이크스피코협정 ~1916

• 1917 미<방첩법> 2 러시아2월혁명·짜르붕괴 3.3 소독단독강화
4.6 미1차세계대전참전선언 11 러시아사회주의10월혁명

• 1918 미<반선동금지법> 1.8 월슨<14개조평화원칙> 국제연맹제안 3.3 브레스트리토프스크조약 5 미군전선배치

1919

• 1919 파리평화회의·베르사유조약 월슨노벨평화상수상

• 1921 워싱턴해군군축회의 12 미영프일4개국조약

• 1922.2.6 9개국조약

1934

• 1934 미상원특설위<나이위원회> ~1936 의장 제럴드나이

1936

• 1936.2.24 <나이보고서>



고립주의의 완전한 탈피 미국중심의 글로벌체제 확립

1929세계경제공황은 고립주의를 강화함과 동시에 미국의 안보전략을 <국가주도형>으로 바꿨다. 1933 루스벨트미대통령은 금본위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화폐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시작했다. 이는 대내적으로는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였으나 대외적으로는 군수산업을 포함한 국가동원체제의 재정확보를 위한 조치기도 했다. 경제공황의 여파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스무트홀리관세법)를 채택하자 자원이 부족했던 일본과 독일은 각각 <엔블록>과 <생존권(Lebensraum)>을 내세우며 팽창을 시도하는데로 나아갔다. 미국은 이를 <경제적침략>으로 간주하고 일본에 대한 석유·철광수출중단(ABCD 포위망)이라는 안보적단죄를 내렸으며 이는 진주만공습의 직접적발단이 됐다. 루스벨트는 나이위원회가 제기한 <은행가들의장부를위해피를흘리지말자>는 여론을 의식해 <돈을빌려주는것이아니라장비를빌려주는것>이라는 교묘하면서도 실리적인 프레임을 구축했다. 루스벨트는 <옆집에불이났을때호스를빌려주지않겠는가>라며 중립법의 핵심인 <무기수출과 차관금지>를 무력화했다. 루스벨트의 <렌드리스(전쟁지원)>는 후분체·임대형식을 취해 영국·소련에 무제한 물자를 공급하도록 했다. 이런 논리로 시작된 전쟁물자공급은 1929공황이후 유휴시설이 된 미국공장들의 생산가동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는 또 본격적참전에 미국의 공업을 전신체제로 미리 전환시킬수 있었다. 이같은 렌드리스매커니즘을 <민주주의의병기창>으로 치장했다. 미국은 렌드리스를 대가로 영국에 <전쟁후차별적무역장벽철폐>를 요구했고 영국이 보유한 금과 미국내자산을 모두 매각할것을 요구했다. 이는 영국파운드화의 패권을 상실하는 결정적계기가 됐다. 1944 브레튼 우즈회의에서 영국측대표였던 케인즈는 국제청산동맹(ICU)과 방코르(Bancor)라는 중립적통화를 제안했으나 미국은 이를 묵살하고 달러중심의 금본위제를 강요했다. 1941.12 일본의 진주만공습으로 인한 미국의 2차세계대전참전직전 이해 1월 루스벨트는 연설에서 2차세계대전참전의 명분으로 언론과표현의자유·신앙의자유·결핍으로부터의자유(경제권)·공포로부터의자유(국방권)를 내세웠다. 고립주의적인 미국내여론을 무마시키고 전쟁참여를 정당화한 핵심이념으로 알려졌다. 이런중에 1941.8 미영정상은 대서양회담에서 파시즘에 대항한 공동의 목표를 확립했다. 주요내용은 영토확장금지·민족자결·전후국제평화와안전을위한국제협력·경제적협력(자유무역)·공포와결핍으로부터의자유보장등이다. 이는 이후 1945 종전후 유엔의 창설로 귀결됐다. 루스벨트는 외교협회가 2차대전발발이후 꾸린 <전쟁과평화기획>팀과 국무부내에 구성한 <전후대외정책자문위>의 기획에 의존했다. 루스벨트사후 취임한 트루먼은 전후 가장 큰 위협을 소련과 사회주의 세력으로 보고 1947 <트루먼독트린>을 발표, 사회주의세력의 확장을 막기 위한 <봉쇄전략>을 안보의 근간으로 삼았다. <마셜>계획(유럽부흥계획)을 통해 경제적으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를 통해 군사적으로 이를 실현했다. 1950 국가안보회의보고서 NSC68은 미국의 안보예산을 기존보다 3배이상 증액할것을 권고하며 전세계 어디서든 공산주의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력증강과 전면적인 대결태세를 확립했다. 1953 취임한 아이젠하워는 경제적전진성을 국가안보의 기초로 보면서 <뉴룩>전략을 표방했다. 재래식군사력을 감축하고 핵무기의 압도적우위를 바탕으로 <대량보복>원칙의 <비대칭억제전략>을 내세웠다. 또 직접적군사개입보다 CIA를 통한 비밀작전과 상호방위조약(SEATO·CENTO등)을 통한 저비용·고효율의 안보망을 구축하려했다. 그런 그도 퇴임사에서 <군산복합체>의 위험성을 경고하지않을수 없었다.



1929

• 1929 상대적과잉생산세계경제공황

• 1933.1.23 20차수정헌법 대통령임기·의회회기시작일을앞당김 <레임덕>기간축소목적 3.4 루스벨트미대통령 ~1945.4.12

1939

• 1939.8 소독불가침조약 9 2차세계대전 ~1945.9

• 1941.1 루스벨트연설<4가지자유> 4 소일중립조약 8 미영정상회담<대서양헌장> 12.7 일진주만공습

1943

• 1943.9 이탈리아항복 11 카이로회담 미영중 12 소미영테헤란회담<반파쇼전선>

• 1944.6 노르망디상륙작전 바그라티온작전 7 브레튼우즈체제

• 1945.2 얄타회담 4.12 루스벨트사망 4.30 히틀러자살
5.8 독항복발표 트루먼전쟁물자지원<렌드리스>중단행정명령서명 7 포츠담회담
8.6.9 미일히로시마·나가사키원자탄투하 8.15 일항복선언 9.2 일항복서명 10 유엔

• 1947 GATT 미전쟁부→국방부 육해공군통합 3 <트루먼독트린> 7 <마셜>계획

• 1949.4 나토

• 1950 코리아전 ~1953.7

• 1951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22차수정헌법 대통령직3선금지 연준·미재무부합의

1952

• 1952.11 미대선·아이젠하워당선 12 아이젠하워<한국>방문

• 1953.1 코리아전<신공세> 아이젠하워미대통령 3.5 스탈린서거

1954

• 1954 바르샤바조약기구



〈유연대응전략〉과 〈힘의균형전략〉

1972.2 중미회담

1950년대 아이젠하워의 〈대량보복전략〉은 국지적도발에도 핵무기사용을 불사한다는 극단적비용절감전략이었다. 1957 소련의 〈스푸트니크〉인공위성발사로 미본토타격가능성이 열리면서 이전전략의 한계가 드러났다. 1961 취임한 케네디는 핵전쟁과 재래식전쟁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무력으로 대응하는 〈유연대응전략(Flexible Response Strategy)〉을 국가안보의 핵심기치로 정립했다. 이전전략의 본질은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있다. 케네디는 취임 첫째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약15%증액하며 재래식전력의 현대화를 단행했다. 특히 〈모든형태의위협에대한대응〉을 위해 육군3개사단을 추가 창설하고 베트남등지에서 부상하던 게릴라전에 대비해 〈그린베레〉와 같은 특수부대를 육성했다. 이는 단순한 군비확장이 아닌 전쟁의 단계적확대를 미대통령이 통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케네디는 1962 쿠바미사일위기에서 이를 실천에 적용해 소련의 미사일기지건설에 대해 즉각적인 핵타격이나 전면적침공 대신 해상봉쇄라는 중간단계를 선택했다. 또 적의 선제공격이후에도 보복타격이 가능한 〈2차공격〉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니트맨〉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플라리스〉잠수함발미사일(SLBM)을 실전배치했다. 1960년대초 미국의 핵탄두보유량은 약1만8000발에서 3만1000발이상으로 급증, 상호확증파괴(MAD)체제를 도모했다. 한편 케네디는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에서 동맹국들에게 재래식방위분담의 확대를 요구했다. 〈한국〉에도 코리아반도에서 국지전발생시 주〈한〉미군의 즉각적인 핵개입을 기대하기보다 〈한국〉군의 재래식억제력을 키워 전쟁의 급격한 확대를 막을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시기의 〈베트남인에의한베트남전쟁〉과 베트남에서의 미국의 〈특수전〉과 궤를 같이 한다. 케네디는 군사고문단파견(약1만6000명)을 통해 베트남에 대한 개입을 확대했으나 전투병과병을 거부하고 철수계획을 고려했다. 그의 사후 후임 존슨대통령은 〈통킹만사건〉을 조작해 의회의 선전포고를 유도했고 베트남전쟁을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본격적인 전면전으로 만들었다. 1968 대선에서 베트남전의 종전을 공약한 닉슨이 당선됐다. 1969 팜에서 발표된 〈닉슨독트린〉은 미국안보전략의 근간을 〈직접개입〉에서 〈방위분담〉으로 급격히 이동시켰다. 〈아시아의방위는아시아인의힘으로〉라는 원칙을 천명하고 핵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하되 재래식전쟁이나 게릴라전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1차적책임을 진다는점을 분명히 했다. 자국이이익우선의 현실주의로의 회귀로 평가됐다. 케네디가 〈자유수호〉라는 이념적가치를 내세웠다면 닉슨과 키신저는 〈힘의균형〉을 중시했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 달러금태환체제의 위기가 가시화됐고 1971.8 닉슨정부는 금태환정지를 선언하는 상황이었다. 중국과의 관계개선(1972)으로 소련을 견제하고 안보비용을 절감하며 베트남에서 〈명예로운퇴각〉을 추진했다. 키신저의 세력균형론은 특정국가가 압도적우위를 점하지못하도록 국가간 힘의 분포를 조정함으로써 대규모전쟁을 방지한다는 고전적유럽외교술에 뿌리를 두고있다. 키신저는 미국의 쇠퇴를 인정하고 소련·중국과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미국의 패권을 관리하려했다. 소련과도 전략무기제한협정(SALT)등을 통해 핵전력을 일정수준에서 억제하려는 목적에서 1975 헬싱키프로세스를 추진했다. 키신저는 1970년대초 주〈한〉미군철수와 남북대화권유등으로 코리아반도의 긴장을 낮추려고도 했지만 1976판문점미루나무사건으로 전쟁을 획책하기도 했다. 이사건은 1975 유엔사해체결의에 이어 블록불가담진영에서 주〈한〉미군주둔에 대한 반대여론이 형성되던 시기에 발발했다.

1953

• 1953.1.20 닉슨미부통령 ~1961.1.20

1962

- 1961.1.20 케네디미대통령취임 4 피그만침공·플라야히론전투
- 1962.10 쿠바카리브해위기
- 1963.6.4 행정명령11110호<재무장관에게은태환화폐발행권한부여> 11.22 케네디암살
- 1964.8.4 퉁킹만사건 8.7 미베트남전쟁선포

1968

- 1968.1 <푸에블로>호사건
- 1969.1.20 닉슨미대통령취임 키신저국가안보보좌관임명
- 1971 주<한>미군7사단 약2만명 전격철수 7 키신저방중 10 중화인민공화국유엔지위회복·대만유엔탈퇴
- 1972.2 닉슨방중 중미정상회담 5.26 SALTⅠ협정체결 모스크바 6 <워터게이트>사건발생 11 미대선·닉슨당선
- 1973.1 파리평화조약·베트남전쟁종전 3 미군베트남완전철수 9.21 키신저국무장관취임
- 1974.3.25 조선최고인민회의5기3차회의허담외교부장보고<미국의회에보내는편지>채택·북미평화협정체결공식제안 8.9 닉슨대통령사퇴
- 1975.8 헬싱키협정 CSCE(유럽안보협력회의)최종의정서 조선불복불가담운동가입 <한국>가입무산 9 키신저30차유엔총회코리아반도긴장완화와평화체제구축을위해4차 미조<한>중 회담개최공식제안 11.18 유엔총회유엔사해체결의A·B안동시채택
- 1976.8 판문점미루나무사건

1977

- 1977.1.20 카터미대통령취임
- 1978 미<한>연합사령부(CFC)설립·유엔사권한이관

1979

- 1979.6.18 SALTⅡ협정체결 빈 중미수교 미대만단교

1995

- 1995.1.1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냉전〉의 전환점, 〈레이건독트린〉

1987.12.8 소미중거리핵전력조약체결

1970년대 베트남전패배와 데탕트(긴장완화)의 실패, 이란인질사건으로 미국의 위신이 실추된 가운데 1981 출범한 레이건정부는 〈힘을통한평화〉를 기치로 내걸고 압도적군사우위를 바탕으로 한 공세적안보전략을 추구했다. 1983.3 소련을 〈악의제국〉으로 규정하며 강경한 대소정책기조를 주장하면서 소련핵미사일을 우주에서 요격하는 체계에 대해 밝혔다. 1983.11 미국과 나토는 핵무기사용을 가정한 전쟁연습〈에이블아처83〉을 진행했다. 코리아지역에서의 핵전쟁연습〈팀스피리트〉도 이시기 더욱 강화됐다. 이전전략의 핵심은 SDI(전략방위구상, 이른바〈스타워즈〉)계획이다. 이는 소련과의 〈핵균형〉, 상호확증파괴(MAD)체제를 붕괴시키고 기술적격차를 통한 절대적우위를 목표로 했다. 1980년대초 미국은 GDP의 약6~7%를 국방비로 투입하는 대규모군비확장을 단행했는데 이는 카터행정부시절대비 40%이상 증가한 규모였다. 미국방예산은 1980 1340억달러에서 1985 2527억달러로 급증했다. 군사적팽창으로 미국의 쌍둥이적자(재정·무역적자)가 심화되자 1985 플라자합의의 경제적조치를 일본·독일의 동맹국들에게 강요했다. 이러한 고강도군비경쟁이 고르바초프의〈개혁〉·〈개방〉과 〈냉전〉종식에 맞물려 레이건미대통령은 20세기에 획을 그은 사회주의혁명과 2차세계대전종전후 40여년간 지속된 냉전의 종식을 가져온 인물로 내세워졌다. 1985.3 새로 집권한 고르바초프소련공산당서기장은 이해 4월 미사일의 유럽배치중단을 선언하고 7월에는 더이상 핵시험을 하지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1986.1 소련의 핵시험금지조치를 일방적으로 3개월 연장한다면서 지구상의 모든 핵무기를 앞으로 15년내 2000까지 없앨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전면군축안을 제의했다. 이해 고르바초프는 아프간(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의 철수도 발표했다. 1986.10.11 소미양국의 정상회담이 진행됐다. 회담은 고르바초프의 SDI제한요구로 인해 결렬된것으로 알려졌다. 1987 고르바초프는 SDI제한요구마저 철회했고 레이건도 탄도탄요격미사일(ABM)금지조약에 서명, 12월 소미양국은 워싱턴정상회담에서 중거리핵전력(INF)조약에 서명하고 4년뒤인 1991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에 합의했다. 이해 소련이 붕괴했다. 레이건정부는 고강도군비경쟁과 함께 저강도분쟁전략을 실시했다. 1985.2 연두교서에서 레이건은 〈자유를위해싸우는이들을지원하는것은우리의권리일뿐아니라사명〉이라며 아프가니스탄·니카라과등의 반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발표했다. 아프가니스탄·니카라과·앙골라등의 반정부세력을 지원하며 사회주의의 확장을 저지하고 미국의 패권을 확대했다. 〈레이건독트린〉으로 불린 저강도분쟁전략은 이전까지의 냉전전략, 트루먼독트린의 〈봉쇄〉전략이 이미 〈공산화〉된 지역을 붕괴시키는 〈축출〉개념으로 전환된것으로 평가된다. 1960년대 베트남전의 전면전에서 크게 패퇴하고 1970년대 수세에 몰린 미국의 냉전전략을 1980년대 〈저강도전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켰다고 보는것이다. 이는 1991 소련의 붕괴로 인해 역사적으로 더 강력한 호응을 얻게 됐다. 한편 1980 이란인질구출작전의 실패와 1983 그레나다침공작전의 지휘혼선을 겪으면서 미의회가 군개혁에 나섰고 1986 골드워터니콜스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국가안보전략(NSS)보고서작성을 의무화해 안보정책의 통제와 민주적책임성을 강화하며 〈최상위전략지침서〉로 안보전략이 국방부뿐아니라 범정부적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철되도록 요구했다. 법안은 매년 보고서작성을 하도록 했지만 실제 매년 보고서가 제출되지는않았다.

1980

- 1980.11 미대선

1981

- 1981.1.20 레이건미대통령취임

- 1984 조선3자 북남미 회담제안

- 1985.3.11 고르바췌프서기장 ~1991.8.24 소련공산당해산 9.22 플라자합의 G5 미·영·프·독·일 11.19 제네바소미정상회담

- 1986 골드워터니콜스법 NSS제출의무화 우루과이라운드 2 소련공산당27차대회

1987

- 1987 NSS 2.22 루브르합의 G6 미·영·프·독·일·캐 소미중거리핵전력조약(INF)체결

1988

- 1988 NSS

- 1989 <워싱턴컨센서스> <신자유주의> 1.20 조지H.W.부시미대통령취임

- 1990 NSS

1991

- 1991 NSS 소미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체결 12.26 소련붕괴



〈신자유주의〉시대, 안보전략의 새로운 인식

1993.9.14 클린턴 NAFTA협정 최종서명

1991 소련붕괴이후 사회주의권이 대거 몰락하자 이념을 기치로 하는 〈냉전〉시대의 담론이 허물어지고 그자리를 이룬바 〈세계화〉가 대체했다. 정보통신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를 뒷받침했다. 세계화는 철저히 미국식자유주의, 미국의 유일패권에 기반을 둔것으로 〈1극화〉이자 전세계의 〈미국화〉였다. 1993 등장한 클린턴정부는 안보전략으로 〈관여와확대전략〉을 수립했다. 냉전시기 군사적대결을 중심으로 했던 전략에 경제적이해와 이익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 강해졌다. 미국은 〈신자유주의〉경제전략을 바탕으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체결과 WTO(세계무역기구)출범을 주도했다. 1986 우루과이라운드를 시작으로 세계적차원에서 보호무역주의가 자유무역주의(시장개방)로 선회했다. 이는의는 미국이 심각한 쌍둥이적자(재정무역적자)의 위기에 처했던 시점에 시작됐다. 시장개방은 냉전의 종식을 미국식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치장한데 기초해 시장경제의 확대는 곧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다. 경제는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로 사회의 중요분야다.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이 경제적이유로 패권국 미국에 의존하지않을수 없었다. 또 1990년대 클린턴정부는 〈나토동진정책〉을 추진해 구소련권국가들을 나토에 편입시켜 유럽내 안보완충지대를 확장하고 러시아의 재부상을 견제하려했다. 2000 클린턴은 푸틴의 나토가입제안을 거절하면서 나토의 확장이 러시아에 대한 견제라는 점을 드러냈다. 또 미국은 〈보편적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워 보스니아내전과 코소보내전에 군사적으로 개입했다. 2001 부시정부가 들어서고 〈9.11테러〉가 조작된후 미정부의 안보전략은 〈테러와의전쟁〉으로 규정됐다. 2002.1 부시는 미국이 그동안 주장해온 〈불량국가〉·〈테러국가〉들을 모아 〈악의축〉으로 지목했다. 축(Axis)이란 2차세계대전당시 파쇼국가들이 자신들끼리 국제관계의 중심축이라고 부르면서 유래한다. 이슬람권언론은 〈악의축〉이라는 지칭에 반발해 서아시아(중동)의 반시오니즘무장세력을 〈저항의축〉이라고 불렀다. 2024.6 미상원의원이 러시아·중국·조선을 〈신침략자의축〉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주목됐다. 부시정부의 테러와의전쟁은 21세기 새로운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을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미의회는 미행정부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애국자법과 무력사용권한법(AUMF)이 통과돼 수사·체포구금, 전쟁개시권한이 보장됐다. 부시정부는 2001 아프간(아프가니스탄)전쟁, 2003 이라크전쟁을 개시했다. 이라크전쟁에서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거론하며 선제공격전략을 내세웠다. 위협이 현실화되기전 먼저 타격한다는것이지만 후세인이라크정권의 대량살상무기보유 의혹을 비롯한 아프간전·이라크전의 원인들은 조작된것으로 확인됐다. 부시는 취임직후에 이미 이라크전을 기획했다. 석유·천연가스약탈을 위한것이였다. 이로써 침략전쟁의 본질은 분명해졌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2011 이라크전을, 2021 아프간전을 끝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초기명분은 불분명해졌고 2008 금융위기까지 덧붙여져 과도한 군사개입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고있다.

1989

• 1989 <워싱턴컨센서스> (신자유주의)

• 1991 소미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체결 9 남북유엔동시가입

1993

• 1993.1.20 클린턴미대통령취임 클린턴정부<관여와확장전략> 2.25 김영삼대통령취임

• 1994.1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NSS 5 미대조선위게임 7.8 김일성주석서거 10.21 제네바조미기본합의

• 1995.1 조선<선군정치> WTO

• 1996.4 미<한>정상회담 제주

• 1997 조미<한>중4자회담 ~1998

1998

• 1998.8 NYT조선핵개발의혹보도 8.31 조선<광명성1><백두산1>발사

• 1999.3 페리방조<금창리사찰> 10 페리보고서

2000

• 2000.6.13~15 남북수뇌회담 남북공동선언 10.12 조명록·클린턴백악관회담

• 2001.1.20 조지W.부시미대통령취임 9.11 자작테러 9.14 무력사용권한법안의회통과
9.18 무력사용권한법안 서명·발효 10 미애국법 11 아프간전쟁 ~2021.8

• 2002.1 부시<악의축> 10.1 NSS<선제타격><힘을통한평화>

• 2003.3 이라크전쟁 ~2011

• 2006 NSS

• 2007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 2008 세계금융위기

• 2009.1 오바마미대통령취임 힐러리미국무장관 ~2013.2

• 2010 NSS 러미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체결 2011발효·2026.2.5종료

2015

• 2015 NSS 6 미자유법

2020

• 2020.7 USMCA 미멕시코무역협정



〈유라시아포위환전략〉과 제국주의봉쇄정책

2009.4.7 오바마 이라크 바그다드미군기지 방문
이라크국민들이 〈자국에대한책임을져야할때〉라고 선언

2009~16 오바마행정부시기 미국국가안보전략은 글로벌협력·동맹강화·군사적개입축소·〈아시아재균형〉전략을 중심으로 한 안보환경변화대응에 중점을 뒀다. 2010.5.27, 2015.2.6 각각 2번의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다. 오바마1기국가안보전략은 최후의 수단으로써 군사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외교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8경제위기의 여파를 의식해서인지 군사력은 사용돼야하지만 지나쳐서는 안되며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경제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는 미국의 힘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이라고 발표했다. 오바마정부국가안보전략은 〈유라시아포위환〉·〈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에 기초한 〈피벗투아시아〉·〈재균형〉전략이 근간을 이룬다. 오바마행정부의 군사외교전략은 모두 조선·중국·러시아를 겨냥했다. 한편으로는 이자체가 소련붕괴이후 미국중심의 〈1극체제〉가 본격적으로 균열되고있다는것을 반증하기도 했다. 오바마2기국가안보전략에서는 미국안보전략의 목표를 국제사회에서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하는것으로 봤다. 또 오바마1기행정부기간 미국경제가 완전히 회복국면에 접어들었고 이러한 성장이 지속될것이라는 자신감과 증강되고있는 경제력이 미국을 국제적위기대응에 있어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할수 있는 위치에 올려놓았고 미국의 리더십행사가 곧바로 미국의 핵심이익을 지키는것이라 주장했다. 이보고서에서 강조된 미국의 핵심이익은 안보확보·번영유지·보편적가치확산·국제질서유지등이다. 이러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주도의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내세웠다. 유라시아포위환전략은 미중심의 해양세력이 유라시아대륙내에서 중력의 팽창을 막기 위한 지정학적봉쇄전략이다. 반면 2013.11.3 노동신문은 〈침략전쟁과군사적압력, 내정간섭, 경제제재등은미국의패권구도를종말에로이끌어간근본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무장장비현대화·무력증강책동에 매달린 결과 자체의 정치경제적위기를 스스로 심화시켰고 미국의 군사적패권에 반대하는 여러나라들간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결과적으로 패권적지위를 잃었다고 분석했다. 제국주의의 대중국전략이 실패하면서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이 〈인도태평양전략〉(2017)으로 전환됐다. 오바마행정부의 대외정책은 〈군사개입자제와외교·동맹중심의실용주의〉를 핵심기조로 삼아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을 강조했다. 이란과의 핵협상, 쿠바국교정상화등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했으나 전략적이고 전세계적 구도에서, 피벗투아시아전략에 따라 대중국전제를 위시로 반제세력에 대한 봉쇄정책을 펼쳤고 제국주의간 동맹강화에 힘썼다. 2016.5.14 뉴욕타임스보도에 비춰보면 2011.10.21 오바마는 전임자인 부시와 달리 전쟁을 끝내겠다는 약속으로 취임했지만 취임한지 3년만에 이라크에 전투지원병력증강방침을 세우고 아프간에서도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퇴임했다. 더해 보도는 〈미국역사상2번의임기내미군이전쟁을벌인것은오바마대통령시절이처음〉이라고 비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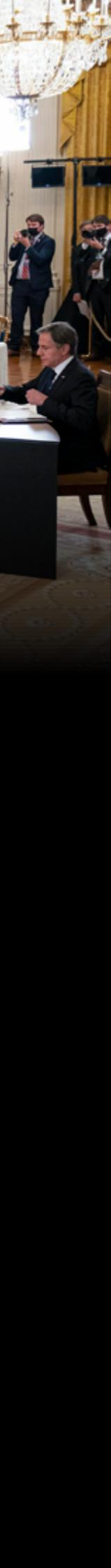
- 2001 • 2001.11 아프간전쟁 ~2021.8
- 2003 • 2003.3 이라크전쟁 ~2011
- 2007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 2008 • 2008 세계금융위기
- 2009.1 오바마미대통령취임 힐러리미국무장관 ~2013.2
- 2010.5.27 NSS
- 2011.3 나토리비아공습 5.2 빈라덴사살
- 2013.1 오바마행정부2기취임
- 2014 • 2014.6 오바마미군450명이라크파병결정
- 2015.2.6 NSS
- 2016 • 2016.7.6 오바마아프간미군8400여명잔류결정



불안정과 혼란을 초래한 〈인도태평양전략〉

2021.9.24 쿼드정상회의

오바마정부의 〈유라시아포위환전략〉·〈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은 중국이 반제진영의 주력으로 부상한 뒤 〈인도태평양전략〉으로 종합됐다. 인도태평양전략은 대중경제, 역내에서 〈자유롭고개방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파트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인 미래외정책이다. 안보·공급망·경제적연대를 통해 미국의 지정학적이익과 지역내안정을 도모하며 특히 쿼드(Quad), 오커스(AUKUS),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등을 이용한 대중국경제와 압박을 골자로 한다. 전략적동맹강화의 내용은 일본·호주와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해 대중국 경제선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인도태평양전략은 2017 트럼프1기 행정부에서 시작됐고 바이든(정부)로 이어졌다. 〈미국을다시위대하게〉를 내걸고 2017 당선된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며 중국을 〈자유주의국제질서를교란하고 미국의이익에반하는질서를구축하려는수정주의국가이자전략적경쟁자〉로 규정하고 군사력을 통한 안보를 강조했다. 제국주의호전세력 바이든정부는 〈아시아판나토〉·〈나토의태평양화〉를 정치·군사적으로 체계화·실질화하며 군사적긴장도를 격화시켰다. 바이든정부기간 2022 우크라이나전, 2023 팔레스타인전이 발발했고 다국적합동·다영역연습이 미국중심의 핵전쟁연습으로 세계적범위로 폭증했다. 인도태평양전략에 의거한 〈나토의세계화〉는 〈한국〉의 윤석열정부기간 미일 〈한〉동맹, 〈동아시아판나토〉로 드러나며 그호전성이 극에 치달았다. 트럼프1기와 바이든정부를 걸치는 기간(2017~24) 제국주의미국은 미국우선주의를 표면상으로 걸어놓고 중국·러시아를 핵심경쟁자로 규정하는 정세인식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특히 바이든은 〈동맹중심가치기반안보〉를 강화했다. 2019.6.1 미국방부는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이후 인도태평양지역은 미국의 주요외교·국방전략의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인도태평양전략은 이지역에서 미국이 가진 위협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중국·러시아와 초국가적문제를 인도태평양지역의 위협요인으로 규정하고있다. 이같은 미국의 정세인식에 따르면 중국은 규칙에 기반한 지역질서의 최대도전세력이다. 쿼드, 2021.9.15 출범한 오커스가 인도태평양전략의 중심으로 대두됐다. 2021.1.12 트럼프행정부는 1기퇴임 직전 인도태평양전략프레임워크를 기밀해제하고 언론에 공개하며 〈이전략체계가지난3년간트럼프정부의인도태평양전략 지침〉이며 〈지난4년동안미일동맹이강해졌다는점이특히시선을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시기 조선·중국·러시아와 반제진영은 제국주의세력의 봉쇄전략을 딛고 군사·경제적으로 더욱 긴밀해졌다. 중리의 부상은 미국중심의 1극체제를 파탄 내면서 다극체제의 신호탄이 됐다. 인도태평양전략은 지역의 폐쇄와 진영대결을 심화시켰다. 반제진영의 단결은 더욱 강화됐다. 2025 시작된 트럼프2기 행정부는 집권1년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으로 인도태평양전략을 〈서반구요새화전략〉으로 전환시켰고 이를 12월 〈국가안보전략(NSS)2025〉로 공식발표했다. 2026초부터 마두로부부담치와 그에 이은 트럼프의 그린란드미국영토화주장이 파장을 일으키며 국제여론의 반발을 샀다. 지난해 이라크·시리아에서 미군철수를 추진해온 반면 이란에 대한 군사적공세를 강화해 긴장을 고조시켰다. 중미전·서아전은 동아전을 촉진하며 〈글로벌리스트〉의 최고 노림수인 3차세계대전의 본격화를 앞당기게 된다.



- 2017 • 2017.1 트럼프미대통령취임 2 미일정상회담<인도태평양전략> 11.12 쿼드실무회담 12.18 NSS
 - 2018.1.19 NDS(국방전략)
- 2019 • 2019.6.1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
 - 2020.1.3 트럼프정부슬레이마니폭살
- 2021 • 2021.1 바이든미<대통령>취임 3.3 임시국가안보전략지침(INSSG) 9.15 오커스
 - 2022.2.24 우크라이나전 10.12 NSS 통합역제 공급망·기술통제 우크라이나지원
 - 2023.5 G7히로시마정상회의<디리스크(Derisking)> 8.18 미일<한>캠프데이비드선언 10.7 팔레스타인전
 - 2024.6.27~29 미일<한><프리덤에지> 7 나토워싱턴정상회의 10 나토국방장관회의
- 2025 • 2025 1 트럼프미대통령취임·2기행정부 2 트럼프관세협상예고 8.7 미WTO사실상종료선언 12.5 NSS2025
- 2026 • 2026 1.3 트럼프정부마두로부부납치 1.23 NDS2026